외면 받았던 준중형 SUV 덩치 키우고 인기몰이

기아차 신형 스포티지 선봉 전기차 EV6·현대차 투싼 등 3분기 4.9만대…전 차급 판매 1위 커진 공간에 저렴한 가격 '인기'

덩치를 키운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다. 광주에서 생산되는 기아의 신형 스포티지가 '준중형 SUV 군단' 선봉에 서며 자동차 시장을 휘젓고 있고, 전기차 EV6와 현대자동차의 투싼이 뒤를 이어 거침없이 질주하는 분위기다.

25일 국내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지 난 7~9월) 국내 완성차 업계 5개사의 판매 실적을 종합한 결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준중형 SUV는 총 4만9495대가 팔렸다.

이는 지난해 3분기 같은 기간 총 2만5356대가가 팔렸던 것과 비교해 2배 상당 증가한 것은 물론, 각 차급 판매 실적에서 1위를 차지한 수치다.

앞서 한동안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대세로 여겨 졌던 중형 SUV는 지난해 3분기 5만2970대가 팔 린 것과 달리 올 3분기 4만3346대로 18.17% (9624대) 감소해 차급 판매 실적 2위로 밀려났다. 3위는 2만8226대가 팔린 중형 승용이었다.

이처럼 준중형 SUV가 '강자'로 군림했던 중형 SUV를 꺾고 최고 인기 차급으로 급부상 한 것은 최근 업계가 준중형 SUV 신차를 잇달아 출시하면 서 '신차 효과'를 본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이다.

우선 올해 7월 출시된 신형 스포티지의 경우 올 3분기 1만4036대(내연기관 1만1641대·하이브리드 2422대)나 팔리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구형 스포티지 판매량 4007대보다 무려 250.3%나 급증했다. 동급 차량인 현대차의 투싼도 9886대가 팔리면서 전년 대비 판매량이 78.3% 늘었다.

여기에 기아의 첫 전용전기차 EV6가 지난 8월 출시된 이후 4564대가 팔렸고, 앞서 4월 출시된 현 대차의 아이오닉 5도 9767대나 팔리는 등 준중형 SUV 차급의 전기차가 많이 팔린 것도 한몫 했다는

특히 준중형 SUV가 자동차 시장에서 중형 SUV를 따돌리고 급부상한 것은 차제가 커진 게 주효했다. 중형 SUV만큼 차체가 커지면서 크기에 별 차이가 없고 대신 가격은 더 저렴한 준중형 SUV를



기아 신형 스포티지

찾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신형 스포티지의 경우 전장(차체 길이)이 4660 mm로 이전 모델(4485mm)보다 175mm 길어졌고, 실내 공간 크기를 좌우하는 축거(앞뒤 바퀴 간 거리)는 2755mm로 85mm 늘었다. 현대차의 대표적 중형 SUV 모델인 싼타페(전장 4785mm, 축거 2765mm)

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또 엔진을 위한 공간이 필요 없는 전용전기차를 살펴보면 아이오닉 5와 EV6의 축거가 각각 3000mm, 2900mm로 중형 SUV를 넘어섰으며, 현대차의 대형 SUV 모델인 팰리세이드의 축거(2900mm)를 뛰어넘기도 한다. 실내 공간이 그만큼 넓어진 것이다.

현대차 신형 투싼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차박 수요가 높아지고 큰 차를 선호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SUV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크기에서 큰 차이가 없는 대신 중형보다 비교적 저렴한 준중형 SUV를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벤츠 코리아 품질만족지수 6년 연속 1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21 한국품질만족지 수(KS-QEI)' 자동차 A/S(수입자동차) 부문에서 6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올해 자동차 A/S(수입자동차) 부문 1위와 함께 럭셔리세단 F 세그먼트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플래그십에 해당되는 럭셔리세단 F 세그먼트 부문에서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S 클래스가 차량의 성능과 신뢰성, 이미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으며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는 산업별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로,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가 실제 소 비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 를 통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올해 평가에서 신뢰 성, 접근성, 인지도 등 다양한 항목에서 높은 평가 를 받아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게 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 총 60개의 공식 전시장, 75개의 공식 서비스센터, 1250개 이상의 워 크베이 등 인프라 확대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이밖에 사고 발생 시 공식 서비스센터까지 무상 차량 견인 서비스와 사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로' (MOBILO) 서비스, 접수부터 출고까지 의 서비스 소요 시간을 최소화해 고객 편의를 극대 화한 '익스프레스 서비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 른 차량 픽업&딜리버리 및 살균 소독 서비스, 통합 서비스 패키지 연장 등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 글로벌 홍보대사 나달에 첫 전용전기차 EV6 전달

기아는 최근 스페인 마요르카에 위치한 라파 나달 아카데미 (Rafa Nadal Academy)에서 글로벌 홍보대사 라파엘 나달 (Rafael Nadal)에게 기아의 첫 전용전기차 EV6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EV6의 유럽 본격 출시에 맞춰열린 행사로, 기아가 라파엘 나달에게 제공한 모델은 EV6 GT-line이다. 나달은 현재 거주중인마요르카 지역뿐 아니라 2022 호주 오픈 등 테니스 투어 대회 등에서 EV6를 이동수단으로 적극활용할 계획이다.

전달식에서 나달은 자유로운 전력 활용이 가능한 V2L(Vehicle To Load) 기능을 통해 테니스코트 조명을 환히 밝히는 등 EV6가 선사할 다채



로운 고객 경험을 직접 시연했다.

V2L은 배터리 전원을 이용해 외부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전원공급장치로, EV6에 적용된 V2L은 일반 가정의 시간당 평균 전기 소비량인 3kW보다 높은 3.6kW의 소비 전력을 제공한다.

나달은 "EV6로 대표되는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꾸준히 추구해 나가고자 한다"며 "변화의 첫 시작을 EV6와 함께 하게 돼 기쁘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 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는 지난해 나달에 대한 후원을 연장하면서 2004년 첫 계약 체결 이후 21년 연속 나달과의 동행을 약속했다. 나달은 세계 4대 그랜드 슬램 대회에서 총 20번의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스페인 출신의 글로벌 유명 테니스 선수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G20 발리 정상회의 VIP 차량 선정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번째 고급 대형 전동화 세단인 G80 전동화 모델이 'G20 발리 정상회의' (2022 G20 Bali summit)에 VIP 차량으로 제공

25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인도네시아의 미래 EV 생태계' (The Future EV Ecosystem for Indonesia) 행사에서 G20 발리 정상회의 공식 VIP 차량으로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을 선정했다.

G20 발리 정상회의는 2022년 4분기 인도네시 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7회 G20 정상회의로 '함 께 더 강하게 회복하다' (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를 주제로 진행될 계획이다.

G20은 서방의 선진 7개 국가의 모임인 G7을 확대 개편한 세계경제 협의기구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1999년 12월 정식으로 발족됐으며, 2009년 G20 정상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경제문제를 다루는 최상위 포럼으로 격상됐다.

국제 행사에서 VIP 차량이 전기차로 공급된 것은 이례적으로 정상회의 기간 동안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G80 전동화 모델을 활용해 행사일정을 소화하게 될 예정이다.

G80 전동화 모델은 국내 최초의 럭셔리 전동화

모델로 고급 편의사양은 물론 뛰어난 동력성능과 전기차 특화 신기술을 대거 적용한 높은 상품성으 로 갖췄다는 평가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의 선정을 통해 세계 고급 브랜드로 입지를 다지고,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전동화 선도 브랜드로 위상을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재훈 제네시스 브랜드 사장은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중요한 국제 행사에 G80 전동화 모델을 선보일 수 있어 영광이다"며 "G20 발리 정 상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

